

광주~대구 고속도, '달빛고속도로' 이름 바꾼다

국토부 '도로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 고시

고속도 지나는 지자체 등의 뎀 변경 가능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신,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도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다.

고속도로 이름은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하는 이 기본 원칙이다. 가령 광주와 완도를 잇는 도로를 '광주~완도고속도로'라고 정하는 식이었다. 다만, 도로 통과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이름에 넣거나 역사문화자산 등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기념하는 명칭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울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과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이름 붙였다.

새 지침은 이에 더해 노선의 지역적 특

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동의하는 명칭이라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자, 지자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조정해 거친 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만 동의하면 시·중점에 기반한 고속도로 이름을 지역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두 지자체를 상징하는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딴 '달빛'을 고속도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두 지자체가 도로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점인 광주와 대구 말고도

이 고속도로를 지나는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해 도로 명칭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올해 연말 개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도 명칭을 두고 '김해~기장 고속도로'나 '김해~부산 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자체마다 주요 고속도로 명칭을 자기 도시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한 때 '88고속도로'라고도 불렸고, 지난 2015년 12월 왕복 4차선 확장 개통을 앞두고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도로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세-지방세 비율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도록"

이낙연 총리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먼저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국가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한 번에 새로 반영될 기대한다"며 "헌법사항이 아닌 과제들은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총리는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겠다.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 이어 이 총리, 박은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강인규 나주시장, 임수경 한전KDN사장과 함께 한화큐셀 코리아 등 42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광주형일자리'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정책을 공유·제안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광주형일자리 4대 정책을 추진하는 시연행사를 벌여 주목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내년부터 저소득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유정심 시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내년부터 광주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가 지원된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2일 유정심(국민·남구2)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

생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 수학여행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한부모 가족 등인 고등학생이 포함된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1922명, 한부모 가족 110명, 법정 차상위자녀 233명, 중위

소득 60% 이하 자녀 1092명 등 모두 3357명의 고등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며 "해당 고등학생들이 추억과 낭만이 깃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자 노트

한 계엄군 지휘관의 용기있는 고백



김용희 사회부 기자

이달 초 5·18과 관련해 귀가 솔깃한 제보를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암매장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 전북 진안군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확보하고 조심스레 통화를 시도했다.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 의중을 묻자 그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시절했다.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5·18 당시 전일빌딩에 있었던 그 언론사의 기자"라고 말하자 "시간이 가면 얼굴이나 한 번 봅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곧바로 자동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갈 때 만난 그는 막 농사일을 마치고 온 듯 소탈한 복장에 인심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자신을 1980년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이었던 신순용 소령이라고 밝힌 그는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나"며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을회관에서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5·18의 숨겨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 소령은 자신이 부대원들과 함께 당시 시위대를 사살하고 직접 암매장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상세히 보도됐고, '양심선언

을 환영한다"는 국회의원의 논평까지 이어지는 등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37년 전 일을 또렷이 떠올리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그가 한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광주시민의 따뜻함이었다.

광주시민들은 하루종일 배를 곯고 그와 부대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 줬고 "오늘 저녁은 시위가 격렬해질테니 조심하라"고 일러주 기까지 했다고 한다.

신 전 소령은 22일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전 날 옛 광주교도소를 찾아 암매장 조사에 참여해 마음 속 응어리를 조금은 덜어낸 듯했다.

그는 "다행히 지형지물이 크게 바뀌지 않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다"며 "꼭 유해가 발견돼 광주시민의 한이 풀렸으면 한다"고 했다.

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와 암매장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민은 37년 전 그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신 소령에게 따뜻한 시선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있다. 신 소령 같은 용기있는 인사들의 양심고백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kimyh@kwangju.co.kr

'장등1교' '장등터널' 등 4곳 도로시설물 명칭 심의

광주시 지명위원회

광주시는 22일 시청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신규로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 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대상 시설물은 북구 장등동 일대의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 교차로 2개소 등 총 4개소다. 이들 시설물은 시 지명위원회 심의에 앞서 북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당시 북구 지명위원회는 북구 장등동 주민들로부터 이들 시설물에 대한 명칭 의견을 접수받아 '장등1교' '장등터널' '장등교차로' '도동교차로' 등으로 심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가 지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심

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명인 육교, 교차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인공호수, 마을, 신도리, 공원 등의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 에 따라 제정·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12년 8월 북구 장등동 일원에 길이 3.25km, 폭 20~35m 규모로 시공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2공구) 구간의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 심의를 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유리병은 재용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유리병은 보증금 적용	비고
재용방법 시용장 제17조(회수)에 따른 재용	190ml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마사주용 등
	190ml 이상 400ml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용 등
	400ml 이상 1,000ml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반전

↑ 40원 → 100원

[인상 전] → [인상 후]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